

장흥군, 지역 역사와 문화 자원 복원·보존 나섰다

과거·미래 잇는 관광자원 활용 "새로운 문화 장흥 창조할 것"

장흥군은 지역의 역사를 담은 문화재의 원형복원과 보존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국가 지정 25건, 전남도 지정 57건 등 총 98건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 내에서 순천시, 나주시 다음으로 많은 문화재가 장흥에 있는 셈이다.

장흥군에는 선사시대나 역사시대의 수많은 유적이 분포하는데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부터다.

장흥댐 건설로 인해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어졌으며 1988년에 종합적인 지

표조사가 진행, 2004년에 문화유적분포 지도가 완성됐다.

올해는 고대 문화유적 조사 추진으로 장흥군 내 마한문화유적 규명을 위한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토대로 장흥군 내 마한 유적 분포 기초 용역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선시대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오랑개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체제인 봉수유적과 전라좌도 만호진인 회령진성도 발굴 복원을 추진 중이다.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 꾸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장흥군은 2023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국도비 예산으로 3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억원 늘어난 예산 규모다.

국비 21억원, 도비 18억원으로 총 39

억원이 장흥군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천관사 선원재현 건축공사 및 석축공사 26억원, 보림사 가지선원 및 선다원 보수로 3억7000만원, 존재고택 산책로 정비 및 초가이영잇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등 6건 9000만원이다.

장흥 천관사 선원재현 건축공사의 경우 2014년 천관사 원형고증 및 종합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2022년 설계용역을 마쳤다.

2023년 선원재현을 건립하여 문화재 보존정비 및 전통 불교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대원사 요사채 개축, 죽천사 사우, 내삼문 보수, 김응원 각왜비 단청보수 공사 등이

진행중이다. 관산을 옥당리 일대 바우정이 고대 유적 문화층이 대규모 확인됨에 따라 2023년 도비를 확보하여 문화재 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 천관사 내 불교태동지 규명 및 암자 분포 조사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를 위해 탐산사지 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이외에도 문화재 재해 긴급보수 사업,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문화 유적 발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문화 자원의 계승·발전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문화가 살아있는 새로운 장흥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튀르키예 지진 특별모금 보성군, 오늘부터 7일간

보성군은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13일부터 7일간 특별모금 및 구호물품 후원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보성군은 해당 기간 공무원·지역 127개 사회단체를 비롯한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특별모금 활동을 시작한다.

튀르키예 대사관이 필요하다고 공개한 코트·점퍼 등의 겨울 의류물품을 접수받아 전달할 계획이다.

보성군자원봉사센터는 여성자원봉사협의회와 함께 다량체육관에 접수창구를 마련, 구호물품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조속한 복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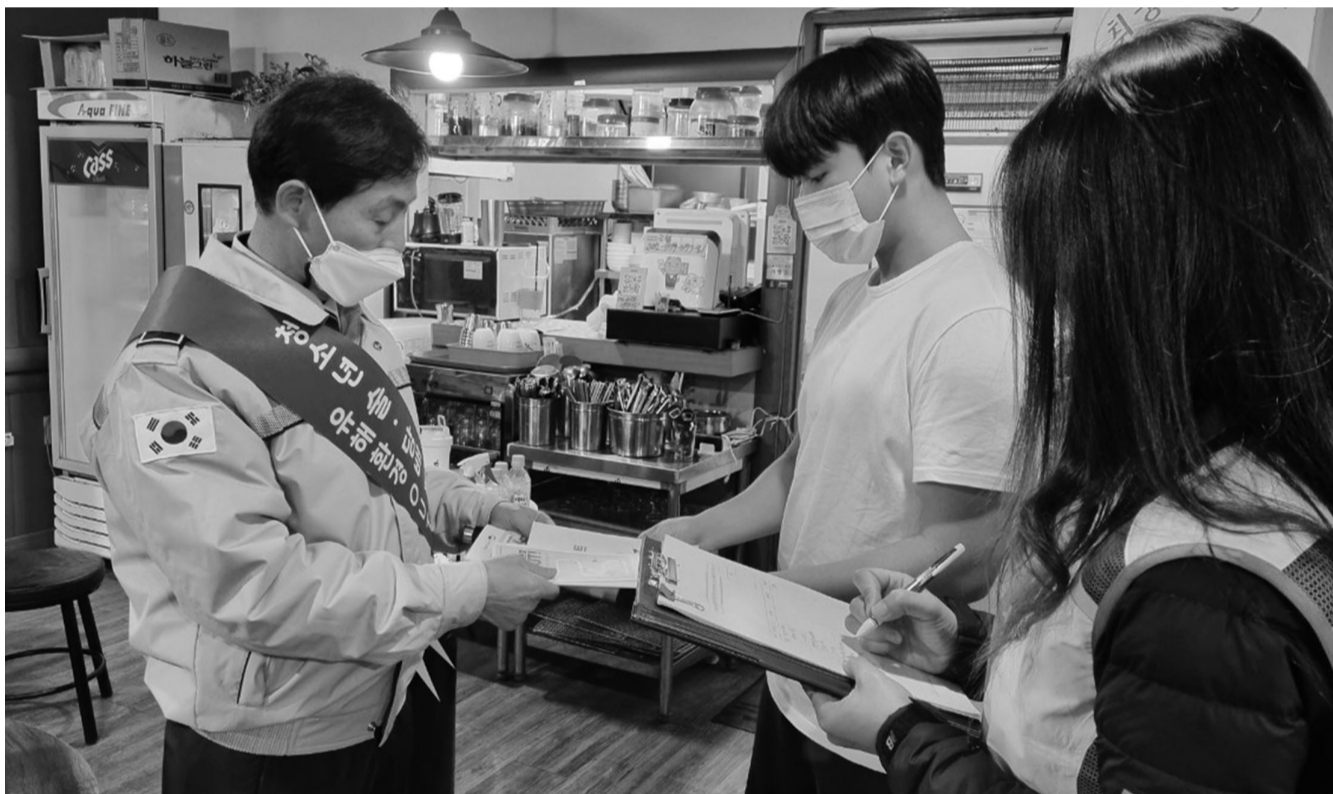
방학중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고흥군, 2월 말까지

고흥군은 2월 말까지 학교 주변 유해환경 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고흥군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계기관·단체 20여명이 협업해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PC방, 노래방, 편의점 등에서 술·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와 무인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 권익보호 등이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 자율적인 생활방역에 '청소년이 먼저 실천합니다!'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김은지 기자**



고흥군은 2월 말까지 학교 주변 유해환경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고흥군 제공**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고흥군 상하촌마을 선정

전남도 인구 유입 정책사업인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사업에 고흥군 금산면 상하촌마을이 선정됐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금산면 상하촌마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도시민을 유치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사업'은 전남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이 고흥군에서 90일까지 체류하면서 농촌 체험, 영농기술 교육, 농어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귀농귀촌 시 원주민과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 정착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시민은 오는 3월 1부터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에 접속해 체험 사업장, 기간 등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도 먼저 살아가기 프로그램 미션 점수를 70% 이상 이수하면 숙박 및 참여비가 무료로 지원된다.

고흥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청년 3달 고흥에서 살아보고 정착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운영 등 다양한 살아보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특별 안전점검

공사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도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23정원박람회 개막 50여 일을 앞두고 박람회장 전체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9일부터 박람회장 내 모든 공사 현장을 시설별로 실시 중 단시킨 후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특별점검을 펼쳤다.

조직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23정원박람회 개막 50여일을 앞두고 박람회장 전체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순천시 제공**

합동점검반은 한국산업안전협회 안전 관리전문가 3명, 순천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조직위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됐

다. 안전전문가, 소방, 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대책반을 매주 1회 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공사 관련법 등에 정한 기준 이상의 강화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 마다 안전장비와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국내 최초로 드론, 피플카운팅시스템, 웨어러블 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안전 재난 통합플랫폼 도입,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매화축제 '2023년 전남도 대표축제' 선정

3월10일부터 10일간 예정

'광양매화축제'가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와 개최 효과 등을 인정받아 2023년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광양시는 광양매화축제가 4년 만에 전남도 대표축제로 재진입해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로 연속 3년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상춘객을 대비해 상황실 운

영, 방역 강화, 교통지도 등 행정지원을 펼쳤다.

축제 취소로 타격을 입은 매실 농가 소득 보전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지원책도 마련했다.

각종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맛과 멋이 광양매화축제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대표 축제 위상을 높였다.

시는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축제슬로건으로 내달 10일부터 열흘

간 열릴 제22회 광양매화축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4년만의 재회'를 컨셉으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와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 등 품격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올해 축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구성해 광양 매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입주기업 박람회 참가비 지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은 광양만권 입주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 확대를 위해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참가비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13일부터 12월15일까지 10개월 동안 광양만권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펼친다.

기업 지원은 부스 임차료, 설치비, 홍보비 등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연 1회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동일 박람회에 대해 타 기관 지원 기업은 제외된다.

참가 신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CIS케미칼, 510억 투자 광양항 세풍항만배후단지

광양항 세풍항만배후단지 첫 입주기업인 ㈜CIS케미칼이 배후단지에 510억 원을 투자한다.

12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CIS케미칼과 첫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 소재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세풍항만 배후단지는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을 위해 광양항 인근 세풍산업단지 33.3만㎡를 매입한 곳이다.

항만 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입지 조건, 공급 시기, 경제성, 장애 확장성 등을 분석했다. 세풍산업부지는 지난해 12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됐다.

㈜CIS케미칼은 총 51억원을 들여 3만 3000㎡(약 1만평) 부지에 공장을 축조하고 고순도 알루미늄 등 이차전지 첨가제와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 전구체 핵심 소재인 니켈, 코발트, 리튬을 양산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